벤처창업연구 제17권 제6호 (통권84호)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17 No.6 pp.51-70

ISSN 1975-7557
e-ISSN 2671-9509

맞춤형 창업교육을 중심으로 한 대학창업지원의 발전방향 제언: 교내 비즈니스 컨설팅을 받은 D대학교 대학생들의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안혜진 (단국대학교 취창업지원처 초빙교수)*
이승하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비즈니스 컨설팅과 같은 학습자 맞춤형 창업교육이 대학창업지원의 일환으로 유용하게 기능할 수 있는지와 비즈니스 컨설팅이 타 기관의 컨설팅과 비교하였을 때 창업 역량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보았다. 나아가 비즈니스 컨설팅과 같은 맞춤형 교육을 활용하여 대학의 창업지원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해 제언하였는데, 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즈니스 컨설팅은 개별 창업자(팀)의 부족한 점을 알려주고 개선 방향을 짚어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타 기관의 컨설팅과 비교하였을 때 컨설턴트와 학생 간 업무적 관계를 넘어 애착관계를 형성했다는 점과 교내에서 무료로 진행했다는 점이 상대적으로 이점을 지닌다고 보이며, 대학생들은 이러한 비즈니스 컨설팅을 통해 한층 더 세상을 성숙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셋째, 본 연구는 맞춤형 창업교육이 교과목 및 타 비교과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끌어낼 수 있다고 보며, 이러한 인식에 기반한 Co-curriculum 교육 시스템 구축 연계 방안을 설계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는 비즈니스 컨설팅을 대표적 사례로 하여 맞춤형 창업교육의 만족도와 가능성을 살펴보고,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창업교육의 지원 방향성을 탐색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가진다.

핵심주제어: 창업지원, 창업교육, 비즈니스 컨설팅, 심층인터뷰, 맞춤형 교육

Ⅰ. 서론

최근 비즈니스 컨설팅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 주목하여, 경영성과의 확대와 경영진의 발전이라는 사회적 니즈를 달성하기 위해 비즈니스 컨설팅과 관련된 연구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비즈니스 컨설팅과 관련된 연구의 대부분은 중소기업과의 관계에 치중되어 있기에(Rocha & Khan, 1984; 김현영 외, 2013; 전기수, 2009), 상대적으로 비즈니스 컨설팅이 예비 또는 신생 창업자에게 끼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나 창업팀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바람직한 비즈니스 컨설팅 방향을 제시한 연구는 적은 실정이다.

비즈니스 컨설팅은 중소기업뿐 아니라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자들에게도 요긴한 도움을 제공한다. 비즈니스 컨설팅은 조직이 추구하는 바와 목표의 달성, 경영과 비즈니스상의 문제해결, 새로운 기회의 발견과 활용, 학습의 기회, 변화의 실행이라는 목적을 가지게 되는데(Kubr, 2003), 이는 창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창업자들에게 적합한 비즈니스 컨설팅을 도입하여, 창업자들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창업자가 성공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경영 계획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비즈니스 컨설팅'이 일반적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 기존 기업을 대상으로 설정한 것과 달리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질 때는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여 비즈니스 컨설팅을 통한 창업교육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실제로 국내에서 창업에 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대학생의 창업 생태계 진입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취업난이 심해지고, 급격히 물가가 상승하면서 근로소득만으로 풍족한 경제생활을 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조성하였기 때문이다.

교육부 대학산학협력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2015년 861개였던 대학생 창업기업은 2020년 1,805개로 5년 새 2배 이상 증가하였는데(박나은, 2022), 이는 대학생 때부터 창업에 도전하는 이들이 늘어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전공별로 구분해보면 예술계열 학생들의 창업의지가 가장 높았으며, 국내의 경우는 법학·경영(경제), 인문, 공학 계열의 순으로 창업의지를 보여 공학계열의 창업의지가 예술계열 다음으로 높은 국외와는 차이를 보였다(이윤석, 2017).

* 주저자, 단국대학교 취창업지원처 초빙교수 및 중앙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박사과정, ahj332@naver.com
** 교신저자,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shpoem@naver.com
· 투고일: 2022-11-04 · 1차 수정일: 2022-12-12 · 2차 수정일: 2022-12-21 · 게재확정일: 2022-12-26

이와 같은 전반적인 현상은 취업이 어려워질수록, 그리고 현재 취업난을 심하게 겪는 계열일수록 창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을 의미한다. 취업의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느낄 때 창업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한다는 이신모(2017)의 연구 결과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갈수록 취업난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취업이 어려운 학과부터 지속적으로 창업에 대한 참여도가 높아질 것을 시사한다. 결국엔 대학생을 주축으로 한 청년층이 시간이 갈수록 창업을 하나의 진로로 깊게 고민하게 될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데,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취업시장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지금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대학생들은 결국 창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창업이 취업난을 타개할 하나의 방안으로 기인할 수 있다는 일념 하에 대학의 창업교육에 대한 지원은 갈수록 그 필요성이 선명해지고 있다. 덧붙여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이 취업 기초체력을 배양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박남규, 2020), 취·창업률의 향상을 위해서는 대학에서 창업교육 등의 창업지원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실제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다지며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하였다. 2022년 중소기업벤처부는 총 3조 6,668억 원 규모의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역대 최대의 금액이다(중소기업벤처부, 2022a). 덧붙여 정부는 지역 청년창업 확산의 거점 역할과 (예비)창업자 발굴·육성을 위해 '창업중심대학'을 모집하였는데(중소기업벤처부, 2022b), 이는 사회에서 청년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핵심 요인 중 하나로 대학을 고려한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대학의 창업지원은 아직 아쉬운 지점이 다수 존재한다. 먼저 학부수준의 비학위 창업강좌는 산만하고 중복요소들이 많으며(홍종득·강현곤, 2016), 대학 내 취·창업지원 조직의 경우 대학 자체 운영(종합인력개발센터), 교육부(창업교육센터), 고용노동부(대학청년고용센터, 취업지원관), 여성가족부(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중소기업청(창업보육센터, 창업지원단, 대학기업가센터) 등으로 분산되어 정부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됨으로 인해 유사·중복사업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허선영 외, 2017).[1)]

또한 대학들은 창업지원정책을 운영함에 있어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였고 부처 간 기준이 상이하여 창업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지니고 있었으며(이수용 외, 2020), 무엇보다 대학 창업 지원금 사용과 관련하여 엄격한 규정과 절차적 복잡성에 의해 어려움을 느꼈기에 이러한 문제점을 같이 해결해 나갈 전문 인력의 상시 상주가 요구된다(이성호 외, 2020). Liu & Zhang(2015)은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의 완전한 구현은 초등학교부터 시작하여 대학을 넘어 졸업 이후 사회 교육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 대학에서의 기업가정신 교육이 시장의 발전과 성장을 촉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우리 사회와 경제가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기 위해선 대학에서 적극적으로 관련 교육을 도입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대학의 창업지원 양상은 청년창업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세태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이라 평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학생의 상황, 아이템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상황에서 단발적·일시적 형태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였다. 창업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장기적인 시각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데, 단편적인 교육은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끌어내기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성공의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창업자를 필두로 팀의 문제를 직시하고 이를 해결해가며 역량을 '계속해서' 강화해야 하기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지금껏 국내 대학에서의 바람직한 창업교육 지원 방향을 고민하였던 일련의 연구들은 대부분 양적연구에 치중되어 있으며(남정민 외, 2022; 임한려·홍성표, 2020; 정연수·조동환, 2020), 그중에서도 맞춤형 교육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그 일환으로 활용할 수 있는 컨설팅은 대부분 양적연구에 주목하였기에(황균정·경성림, 2021; 이정아·정성광, 2020), 연구 주제와 방법에 있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때, 본 연구에서 컨설팅을 맞춤형 교육의 일환으로 판단한 까닭은 정희엽·홍후조(2021)의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국내 맞춤형 교육 관련 연구에서의 상위출현 키워드(TF)에 단순 키워드 빈도를 조사한 결과 컨설팅(85)이 세 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이 밀접한 관계성을 지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수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설병문(2012)이 창업교육을 연계의 고리로 사용한다면 창업 초기에 요구되는 창업경영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창업자에게 제공하고, 창업컨설팅을 통하여 창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야의 제반 문제점들에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창업 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때 이에 대한 유용한 도구로서 창업컨설팅을 활용한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학내에 경영이나 창업 등 관련 컨설턴트가 존재하는 대학을 선정하여 학내 컨설턴트를 통해 비즈니스 컨설팅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학생 9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양적연구는 창업교육의 효과 등을 산출하는 데 있어 유용한 반면 질적연구는 창업교육을 받는 상황이나 수강생의 감정 등을 고려하여 함축된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양적연구에만 치중하게 된다면 실제 현장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고 느끼는지 등 그 욕구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따라서 연구의 다양성과 질적인 발전, 현장에서의 성취를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질

1) 중소기업청은 개정 정부조직법에 따라 2017년 7월 26일 자로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됨.

적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내 대학에서 진행되었던 관련 문헌을 바탕으로 인터뷰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학 내 창업지원을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지를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그 시행방안을 논의하려 한다는 데 있다. 대학생은 창업에 대한 명확한 목표나 목적의식 없이는 창업의도가 형성되기 어렵기에(Walter et al., 2013), 본 연구는 이러한 목표나 목적의식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컨설팅이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참여자의 관점에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는 (예비)창업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창업교육과 비즈니스 컨설팅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지닌다. 구체적으로는 비즈니스 컨설팅에 관한 연구를 심화시켜 대학이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진행된 비즈니스 컨설팅을 살펴봄으로써 대학생들의 반응과 비즈니스 컨설팅의 실태를 면밀히 알아보았다는 의의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연구가 산업과 기업 등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비즈니스 컨설팅이라는 새로운 변수까지 대상을 넓혔다는 점에서 상당 부분 주목해볼 수 있다.

또한 실무적 측면에서도 대학 창업교육 지원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비즈니스 컨설팅을 포함하여 대학 창업교육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의가 존재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향후 대학의 창업지원에 필요한 인력을 분석하고, 교수 등으로 한정되었던 인력 풀을 확대하여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창업지원의 혜택이 더욱 넓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맞춤형 창업교육

창업교육은 '창업가(Entrepreneur)'의 양성이라는 목적 아래 전문적인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며, 창업가란 사업기회를 인식하고 획득하여 기회를 실현하거나 아이디어로 실천하는 과정에서 시장에서의 위험을 감수하는(Kuratko & Hodgetts, 2007) 이를 뜻한다. 이러한 창업에 대해 Drucker(1985)는 유전이 아닌 체계적인 훈련(Discipline)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라 말하였으며, 이후 Garavan & O'Cinneide(1994)와 Gibb(2002) 등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자를 육성할 수 있다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한편 Kuratko(2003)은 창업교육에 관해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며 이와 관련한 연구와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학생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넓은 교육 경험을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하였다(Dutta et al., 2011). 이를 종합해보았을 때,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창업교육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제공한다면 학생들이 창업을 하는 데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 본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Timmons(1994)의 창업교육을 활용하여 창업의지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논의와도 연결된다.

창업교육을 중시하는 관점을 지닌 연구는 국내에서도 여럿 존재한다. 윤영집·이종원(2022)은 창업이 진로 설정에 있어 또 하나의 대안으로 여겨짐에 따라 대학들이 창업교육에 적극적 지원을 행한다고 하였으며, 김윤선·이일한(2022)은 창업교육 전문성과 창업교육 다양성이 대학생의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기홍·김용태(2014)는 창업교육, 특히 그중에서도 창업멘토링교육에 주목하며 지속적인 창업멘토링교육이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창업 성공률 제고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안혜진·이승하(2021b) 또한 사업계획서 교육이 창업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으며, 또 다른 연구에서 창업지원기관이 창업자를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자원을 제공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도 보았다(안혜진·이승하, 2021a). 물론 창업자의 역량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부분도 있지만, 창업교육을 통해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부분이 많기에(곽동신 외, 2016) 창업교육은 그 중요성에 대해 시간이 흐를수록 주목받고 있으며, 고등교육기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대학(원)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국내의 대학 창업교육에 대한 연구는 더욱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구자억 외(2020)는 홀리스틱 교육관점에서 대학 창업교육의 평가모형을 탐색하였으며, 이원철·최종인(2017)은 클러스터(Cluster) 이론으로 접근하여 대학의 창업교육을 체계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어 변지유·이장희(2020)는 기업가정신역량(EntreComp) 관점에서 창업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대학 창업교육을 고도화시킬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처럼 여러 관점으로 연구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본 연구 또한 대학 내에서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맞춤형 창업교육, 그중에서도 컨설팅의 효과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맞춤형 창업교육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는 맞춤형 교육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육부(2021)는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 기반 마련'을 미래 교육과정의 추진과제로 삼을 정도로 '맞춤형 교육'을 중요하게 인지함을 드러냈다. 이에 따르면 학생들의 특성과 요구를 분석하고 디지털 기술과 제도 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실제적 삶을 변화·통합시킬 수 있는 교육을 맞춤형 교육이라고 한다. 맞춤형 수업은 가르치는 대상, 가르치는 장소, 가르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춰 교육자로 하여금 다양한 개인 학생의 효과적인 학습을 확증하는 방법과 절차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데 최우선 목표를 둔다(Tomlinson & Mctighe, 2006). 즉 개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차별화되거나 개별적으로 특화된 방식의 평가, 피드백 등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맞춤형 교육에 관하여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이 다양

한 정의를 내렸다. Tomlinson & Allan(2000)은 맞춤형 수업에 대해 특정한 학습자의 요구에 반응하는 전략이나 방법이라고 하였으며, 김미화 외(2020)는 학생들이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학생 개개인의 요구와 흥미, 능력, 학습 스타일 등에 맞추어 설계된 학습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즉 이들은 학생의 요구를 명확히 파악하여 이에 대응하는 것을 맞춤형 수업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대식(2016) 역시 학습자의 개별적 특성과 요구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다양한 수준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최영인 외(2019)는 맞춤형 수업 설계에 대해 학생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개별 학습자의 인지적·정의적 수준 및 요구를 고려하여 그에 부합하는 최적의 학습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는데, 이 또한 요구에 부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중요히 본 연구라 할 수 있다. 서근원(2021)도 맞춤형 교육은 교원이 학생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통하여 함께 맞추어가는 교육이라고 정의하였다. 결국 맞춤형 교육은 학생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교수자가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일원화된 교육에서 탈피하여 학생의 개별적인 특성에 적합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생의 만족도를 극대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 기반한다면 맞춤형 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선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가 필수적일 것이다.

이처럼 맞춤형 교육은 학습자의 질적 성장을 높이고 특색을 살린 교육 커리큘럼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갈수록 주목받고 있으며, 맞춤형 창업교육의 경우 산업현장에서도 원하는 바를 구직자들에게 전달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기반해보았을 때, 맞춤형 창업교육이란 창업자 또는 창업팀의 고유한 특성·상황·욕구·수준에 맞춰 다양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획일화된 교육을 탈피해 개인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지향하는 것으로, 고객과 시장의 욕구에 맞춰 차별화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창업의 특성과 부합한다. 이는 일방적인 교수의 강의나 교과서 중심의 암기 형태의 학습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피드백과 같은 학습 기회를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육 현장에서는 일종의 과제를 해결해나가는 방식 또한 맞춤형 창업교육의 한 예로 보고 있다. 이를테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데, 비즈니스 컨설팅의 경우 개별 학습자의 창업이나 경영의 목적에 맞게 산출물을 보완하고 수정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고 있으므로 차별화된 지적 작업이자 맞춤형 교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컨설팅 실시과정에 대한 여러 모델 또한 의뢰인의 상황과 요구를 파악한 이후 가장 적절한 해결방안을 찾아내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목표했던 변화를 이뤄내도록 적용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다. 일례로 Kolb & Frohman(1970) 모델에서는 조직의 변화과정을 ①조사 ②착수 ③진단 ④계획 ⑤행동 ⑥평가 ⑦종료로 단계를 나누고 피변화자로 하여금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실제적인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의 달성을 유도하였으며, 국제노동기구(ILO) 주관으로 정리된 '밀란의 모델'은 ①착수 ②진단 ③실행계획 수립 ④구현 ⑤종료로 단계를 구성하여 의뢰인의 현안과 목표를 정립하고, 나아가 문제를 파악하고 원인을 규명하여 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각각의 의뢰인에게 맞춰 개별적인 변화를 유도하였다. 이처럼 컨설팅 실시과정 모델은 다양한 개별 학생의 효과적인 학습을 확증하는 방법과 절차에 초점을 맞춰 특화된 방법으로 가르치는 맞춤형 교육과 맥락을 같이 한다(조영대, 2005).

이에 국내의 많은 선행연구자가 맞춤형 창업교육의 중요도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박지유·양해술(2014)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맞춤형 창업교육 커리큘럼을 통하여 창업의지를 높여야 한다고 보았고, 박종범 외(2020) 역시 창업교육 만족도 향상을 위해 개인의 특성(경력 지향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에 대한 연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며 나아가 이러한 맞춤형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 의지를 높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안소영·조상미(2018)도 청년 창업자들에게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사업체가 직면한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일대일 사업 멘토링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정리해본다면, 대학 내에서 창업교육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다양한 이론적 관점에서 창업교육의 효과성을 증대시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에 창업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교내 창업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컨설팅과 같은 맞춤형 창업교육을 실행하고자 하며, 고유한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 문제를 해결해나간다는 측면에서 비즈니스 컨설팅 또한 맞춤형 창업교육으로 포함될 수 있다고 보인다.

2.2. 비즈니스 컨설팅

광의의 범주에서 컨설팅은 특정 대상에 대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제기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기업경영 관련 사항 외에도 건강, 법률, 결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가 활동이 포함된다(조영대, 2005). 한편 비즈니스 컨설팅은 전문가가 기업정책, 조직 등의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권고하고 개선을 조력하는 서비스로(Kubr, 1997), 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조언을 주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비즈니스 컨설팅은 현장에서 경영컨설팅과 중복된 개념으로 자주 사용된다. Kubr(2003)는 경영컨설팅을 기능적 관점에서의 정의와 전문직업적 서비스 관점에서의 정의로 분류하였는데, 이 기준에 의하면 컨설팅에 대한 기존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아래의 내용들은 Kubr의 정의를 참조하여 재인용하였다. 먼저 기능적 관점에서는 Steele(1975)의 과제수행에 대한 실제적인 책임을 갖지 않은 컨설턴트가

과제의 내용, 프로세스, 구조에 대한 책임을 맡고 이를 수행하는 이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제공하는 것과 Block(2000)의 상황을 변화시키거나 개선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정의다.

이어 전문직업적 서비스 관점에서의 정의는 Greiner & Metzger(1983)가 말한 특별한 훈련을 통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로 고객조직이 경영상의 문제를 확인·분석하는 것을 도와주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안을 고객한테 추천하고, 고객이 이러한 해결안의 실행에 대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이를 제공하는 어드바이스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또한 국제경영컨설팅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f Management Consulting Institutes, 2022)에서는 컨설팅에 대해 경영책임을 가지고 고객의 경영 프로세스에 대해 독립적인 자문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경영 컨설팅은 미국 주요 대학교의 MBA 프로그램에서 '비즈니스 컨설팅'이라 불리며 핵심과목으로까지 신설되고 있다(이국희, 2011).

그러나 경영컨설팅은 협의의 정의인 데 반해 비즈니스 컨설팅은 이보다 광범위한 광의의 범위라는 데 차이를 둔다. 경영컨설팅은 기업의 경영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춘 데 반해, 비즈니스 컨설팅 서비스는 기업의 경영전략, 매수합병,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등 일반적인 경영과정에서 발생하지 않는 특수문제를 포함한 광범위한 개념인 것이다(조영대, 2005). 국내외 사업환경의 변화로 인해 일부 컨설턴트가 자신이 하는 행동을 협의의 정의인 '경영컨설팅'이 아니라 보다 확장된 개념과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뜻하는 '비즈니스 컨설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실태에 기반하여(Kubr, 2003), 본 연구에서도 비즈니스 컨설팅으로 통칭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이때의 비즈니스 컨설팅이란 고객의 개별적인 상황과 니즈를 고려하여, 이를 시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컨설팅을 의미한다. 특히 대학 내에서 진행하는 창업 컨설팅의 경우 아직 기업이 안정적인 궤도에 들어오지 못한 경우가 다수로, 참여자의 상황이 예비창업자거나 초기창업자인 경우가 많아 기업의 일반적인 경영진단 뿐 아니라 초기의 방향 제시 등이 컨설팅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본 연구의 취지상 경영컨설팅보다는 비즈니스 컨설팅이 더욱 부합하기 때문이다. 즉 본 연구에서의 비즈니스 컨설턴트는 참여자들이 타사 대비 명확한 경쟁우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당 사의 운영에 부합하는 맞춤식 해결안을 찾아내고 권고하는 역할을 맡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때 컨설팅은 상담이나 멘토링과는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점은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컨설팅, 상담, 멘토링 간의 비교

구분	컨설팅 (Consulting)	상담 (Counseling)	멘토링 (Mentoring)	코칭 (Coaching)
참가인원 수	1(다수):1(다수)	1:1	1:1	1:1 또는 1:다수
참가자에 대한 인식	문제해결의 대상	치유(치료)의 대상	노하우 전수의 대상	문제해결능력 향상
자발성 정도	수동적	수동적	수동적	수동적
참가자와 전문가의 관계	수직적(수평적) 관계	수평적 상호관계	수직적 관계	객체 관계
문제해결 주체	컨설턴트	고객	멘토	코치
문제해결 방식	해결책 제시	해결책을 찾도록 경청	해결책 제시	개인적, 비지시적 도움

이에 따르면 컨설팅은 정해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며 그 과정에서 컨설턴트는 주도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해결 방식은 개인 참여자별로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컨설턴트 역시 가장 효과적이고도 신속한 해결책을 제시해주며 참여자의 학습촉진을 유도해주는 기능을 한다. 이렇듯 비즈니스 컨설팅은 전문가모델(Expert Model)로부터 사회학습모델(Social Learning Model)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컨설팅과 관련한 지식과 컨설턴트의 역할도 함께 변화하는 것이다(Block, 2011). 일반적으로 컨설팅 서비스가 경영상 직면하는 특정한 문제들과 도전과제의 해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에 이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갖고 있는 문제를 컨설턴트 또한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이다(Kubr, 2003). 그렇기에 이 관계는 상황에 따라 수평적으로 기능할 수도, 수직적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는 유연성을 지니게 된다. 참여자가 처한 상황과 요구에 따라 교육의 관점으로 참여자를 지도할 수도, 혹은 참여자의 문제에 대한 논의에 가까운 컨설팅을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참가인원 수 또한 상대적으로 유동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들은 컨설팅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Kubr(2003)는 비즈니스 컨설팅에 대해 회사 또는 조직의 비즈니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자문 서비스를 받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Williams & Woodward(1994)는 컨설턴트가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객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비즈니스 컨설팅은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개발을 위한 전략 수립에 있어 내부적·외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는 내부적인 비즈니스의 혁신과 외부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장 기회를 개척할 수 있기 때문이다(Lee & Seo, 2018).

특히 Marcin(2017)은 학생들이 받는 비즈니스 컨설팅은 실무지향적인 교육을 받을 좋은 기회이며, 이를 통해 개인의 자기계발, 경력, 네트워크 확장 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았다. 덧붙여 표원지·하환호(2015)는 소규모 창업 초기기업이 비즈니스모델캔버스를 활용하여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

을 자체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는 컨설팅 도구로 활용한 사례를 분석 및 제시하였다. 이렇듯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초기의 상황에 놓인 이들이 비즈니스의 발전을 위해 컨설팅을 활용하려는 경우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히 1997년을 지나면서부터 민간분야의 비즈니스 컨설팅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급증하는 현상이 늘어났으며, 갈수록 토털 컨설팅 서비스를 요구하는 추세로 향후 보다 진보된 개념의 컨설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된다(조영대, 2005).

이처럼 비즈니스 컨설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컨설턴트의 역할은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Fincham et al., 2008).[2] 이에 Canato & Giangreco(2011)은 <표 2>와 같이 주요 변수에 중점을 두고 컨설턴트의 역할을 유형화하였다.

<표 2> 컨설턴트의 역할 유형

항목	유형			
	정보원 (Information sources)	표준 세터 (Standard setters)	지식 브로커 (Knowledge brokers)	지식 통합자 (Knowledge integrators)
주요 목적	고객에게 시장 또는 기술 동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제공	여러 다른 고객에게 동일한 해결책 제안	고객이 동창적인 해결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고객이 해결책을 통합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
규범의 원천	산업에서의 전문 지식과 경험	명성	다양한 산업에서의 경험	해결책에 대한 이전의 경험
경험의 발생	정보의 가용성 향상, 업계의 기업 및 기관과의 다중접촉	브랜드 (새로운 기준 개발)	중개 메커니즘 (예: 연락처, 지식 데이터베이스 사용)	컨설턴트의 전문성

*주: Canato & Giangreco(2011)를 번역.

이에 따르면 첫째, 정보원(Information Sources)으로서의 컨설턴트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제품, 프로세스의 개발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컨설턴트는 대부분 전문가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 컨설턴트가 말하는 정보와 예측을 신뢰하게 되며(Brown & Eisenhardt, 1997), 이 유형의 컨설턴트는 업계에서 오랜 경력을 가졌거나 업계의 네트워크가 있는 이들로서 대부분 충분한 정보 가용력을 가지고 있다. 둘째, 표준 세터(Standard Setters)는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솔루션과 우수한 사례를 설정하고 이를 시장에서 가능한 한 많이 확산시키고 판매하는 데 관심을 둔다(Abrahamson, 1996). 즉 솔루션과 이에 따른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지식 브로커(Knowledge Brokers)는 중개자의 역할로 다른 산업에서의 이전 경험을 활용하여 새로운 영감을 준다(Hargadon, 1998). 즉 자신의 경험을 통해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식 통합자(Knowledge Integrators)로서 기능하는 컨설턴트는 지식 전달을 통해 복잡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줄이고 현장 중심의 접근 방법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Prencipe et al., 2003).

학생들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배양하기 위해서는 전공·교양 과목 등 창업 관련 정규 교과목뿐 아니라 비즈니스 컨설팅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맞춤형 창업교육에서 컨설턴트의 중요성 또한 컨설팅의 그것에 비례하여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경영컨설턴트는 현장 중심적인 접근에 기반하여 대학생들이 실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지식을 다루게 되고, 이는 이론과 실무 지식을 모두 필요로 하는 (예비)창업자에게 있어 상당히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때 앞선 바와 같이 컨설턴트의 역할과 유형을 분석하는 것은 컨설턴트가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탐색할 수 있고 나아가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 컨설팅이 진행되어야 할지에 대한 제언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를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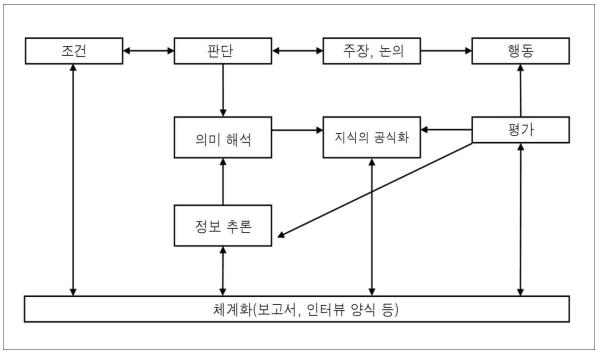
특히 맞춤형 창업교육에 있어 컨설턴트의 '정보원' 기능은 주목할 부분이다. 이정아·정성광(2020)은 대학생이 지각하는 창업현장에 대한 높은 불안감을 상담해주거나 이에 대한 전문가적 식견에서 해결이 필요할 때 전문가 특강, 교내 전문가 상담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컨설턴트는 전문가로서 인식되기에, 학생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해줄 때 대학생들은 창업에 느꼈던 심리적 불안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동시에 전문가의 관점에서 새로운 문제해결의 방향성을 탐색할 수 있어 학생이 비즈니스 컨설팅을 받는 욕구에 본 기능이 가장 부합하기 때문이다.

Creplet et al.(2001)은 전문가와 컨설턴트가 <그림 1>와 같이 지식을 받아들이고 인지하는 과정이 유사하다고 보았다. 이는 고등교육 등 상당한 수준의 훈련을 받은 '지식근로자'에 전문가와 컨설턴트가 포함된다고 보는 관점에 기반하는데, 이러한 지식근로자들은 문제를 인지·식별·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가진 높은 수준의 기술과 지식을 이용하게 된다는 것이다(Drucker, 1993; Reich, 1991). 이는 컨설턴트와 전문가 모두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식과 주의력, 문제해결능력을 적용해야 한다는 인지 메커니즘으로 연계될 수 있다(Lorino, 1997). 결국 이들은 둘 다 과거의 지식이나 경험에 의존하여 새로운 방식의 지식을 재표현해내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Varela, 1989).

이처럼 지식을 토대로 새로운 방안을 생산해내는 컨설턴트는 각 분야의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컨설턴트의 역

2) '경영컨설턴트'의 직무는 "기업 경영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재무, 회계, 인사, 미래비전, 유통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기업의 경영상 문제점을 밝히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며, '창업컨설턴트'의 직무는 "창업준비자를 대상으로 창업종목, 비용, 시설인허가, 메뉴선정 및 구성, 점포개설 등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상담하고 조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직업사전, 2019). 그러나 실무 현장에서는 창업준비자뿐 아니라 현재 사업을 운영하는 이들도 창업컨설턴트에게 상담을 받는 경우가 있었으며, 아직 기업을 운영하지 않는 창업준비자가 경영컨설턴트에게 경영컨설팅을 받는 등의 사례가 다수 존재하였다. 또한 조사 결과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대표적인 창업지원을 하는 공공기관에서도 '창업경영컨설팅', '창업경영전문가'라고 비즈니스 컨설팅에 있어 통칭해서 부르고 있기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0). 본 연구에서는 '경영컨설턴트'로 통칭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량을 논하는 데 있어 '전문성'은 중시되는 요인 중 하나다. Simon & Kumar(2001)는 리더십과 컨설팅에 대한 전문지식을 컨설턴트의 역량으로 보았고, McLachlin(1999) 또한 전문지식과 진실성이 컨설턴트 역량에 속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Creplet et al.(2001)에 따르면 전문가와 컨설턴트는 그 업무와 영역에 있어 세부적인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전문가는 주로 보편적이지 않은 비정상적 상황에 개입하여 창의성이나 상상력과 같은 요인에 기반한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거나 도입하지만, 컨설턴트는 해결방안을 예측할 수 있는 업무를 맡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즉 컨설턴트는 보편적인 상황에서 기존의 방식으로 해결해가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면 전문가는 새로운 해석과 방법을 제안할 수 있는 창조적인 능력을 지녔다는 것인데, 이는 향후 컨설턴트가 역량을 늘리고 전문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나가는 데 있어 창조적 역량을 지녀야 함을 시사한다.



<그림 1> 전문가와 컨설턴트의 인지 패턴과 산출물

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기초자료를 형성하고자 2020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기간 중 D대학 취창업지원처에서 비즈니스 컨설팅(창업 및 경영 관련 컨설팅)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학생 9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In-depth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각 참여자별로 1회에서 2회가량 진행되었으나,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하여 대면과 비대면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대면인 경우 인터뷰 대상자의 거주지 인근 카페 또는 학내 연구실 등에서 진행하였으며 비대면의 경우는 유선과 줌(Zoom)을 통한 온라인을 모두 사용하였다. 이때 얼굴 노출을 부담스러워하는 인터뷰 대상자의 경우, 심리적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유선(음성)으로만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평균적으로 2~3시간 내외로 진행되었으며, 필요할 경우 인터뷰 대상자에 따라 1회 이상의 인터뷰를 추가적으로 진행하여 데이터의 질적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시도하였다.

심층인터뷰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며 연구자가 관찰하려는 상황에 대한 폭넓은 견해를 얻으려고 할 때 이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된다(김영천, 2012). 이 또한 질적 연구의 하나로 강진숙(2008)에 따르면 질적연구는 자연주의적 해석에 기초하며 해석학적 실천을 바탕으로 하는 연구분야이기에, 본 연구 또한 연구대상자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하여 그들이 경험한 바를 재료로 삼아 해석하고자 한다.

<표 3> 연구대상자의 속성

응답자	성별	연령	전공계열	업종	사업자 유무	비고
A1	여	24	예체능계열	공방	X	프리랜서
A2	남	24	이공계열	서비스	X	-
A3	남	31	상경계열	IT	O	기술창업
A4	남	27	예체능계열	제조	O	-
A5	여	28	상경계열	메타버스	O	기술창업
A6	남	27	예체능계열	전자상거래	O	-
A7	여	30	예체능계열	도자도예	X	프리랜서
A8	남	25	소프트웨어(SW)계열	IT 플랫폼	X	기술창업
A9	남	26	공학계열	부동산 시행	X	-

본 연구는 최근 대학에서 진행되는 교내 비즈니스 컨설팅의 동향과 효과성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에, 직접 현장에서 비즈니스 컨설팅을 경험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본 연구의 취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덧붙여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던 이전의 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생들의 대외활동에 대한 자료를 위해 9명의 대상자를 중심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여 최종 8명을 반영한 이희은(2014)과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예방하고 이에 개입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9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한 고기숙 외(2012)가 있다. 이처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중 9명 내외로 진행한 연구가 다수 존재하며, 특히 대학생들에게 취업과 진로에 대한 이야기는 예민한 소재라는 점을 감안할 때(이희은, 2014), 본 연구에서는 9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이 방법론적으로 신뢰도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아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비확률표집방법 중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비즈니스 컨설팅을 성실하고 지속적으로 받았는지를 미리 연구자가 검토하여 이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표본을 선택하기 위해서이다. 덧붙여 단순한 진로 컨설팅 등 창업 컨설팅과 무관한 컨설팅을 진행했다거나 성실하게 컨설팅에 응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는 제외하였다. 인터뷰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계획되었지만, 실제로는 인터뷰 대상자들이 편한 분위기에서 말할 수 있

도록 질문지 내용에 기반한 자유로운 대화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방법론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 문제(Research Question, 이하 RQ)를 구성하였다.

[RQ 1] 비즈니스 컨설팅이 맞춤형 창업교육으로 작용하고 있는가?

[RQ 1-1] 교내 비즈니스 컨설팅을 경험한 대학생들은 비즈니스 컨설팅을 맞춤형 창업교육으로 인지하는가?

[RQ 1-2] 교내 비즈니스 컨설팅은 기존 창업교육과 유사한 역할로 작용하고 있는가?

[RQ 2] 비즈니스 컨설팅은 대학생들의 창업역량에 영향을 끼쳤는가?

[RQ 2-1] 창업역량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끼쳤으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면 어떠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보는가?

[RQ 2-2] 정부·공공기관·사기업 등 타 컨설팅과 비교하였을 때 강점과 약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

<표 4> 인터뷰지 내용

구분	주요내용	질의내용
인식, 현황 파악	1. 대학생 창업 맞춤형 교육의 실태	1.1. 교내 비즈니스 컨설팅에 참여했던 이유(목적)는?
		1.2. 교외 컨설팅을 받아본 적이 있었는지? 없었다면 그 이유는?
		1.3. 교외 컨설팅이 아닌 교내 컨설팅을 신청한 이유는?
		1.4. 비즈니스 컨설팅이 맞춤형 창업교육에 속한다고 생각하는지?
		1.5. 교내 비즈니스 컨설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1.6. 컨설팅에 관한 접근성과 편의성은 어떠한지?
비즈니스 컨설팅과 창업교육의 관계	2. 비즈니스 컨설팅이 창업 역량 강화에 끼치는 영향	2.1. 교내 비즈니스 컨설팅과 같은 맞춤형 창업교육이 대학 창업교육에 있어 유용하게 기능할 것으로 여겨지는가?
		2.1.1. 유용하다면(또는 유용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2.2. 교내 비즈니스 컨설팅이 창업자 또는 창업팀에게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는가?
		2.2.1. 영향을 받았다면 구체적으로 교내 비즈니스 컨설팅을 통해 창업자 또는 창업팀에게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영향이 없었다고 생각하는가?)
		2.3. 교내 비즈니스 컨설팅이 본인의 기업(또는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에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는가?
		2.3.1. 영향을 받았다면 구체적으로 교내 비즈니스 컨설팅을 통해 본인의 기업(또는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영향이 없었다고 생각하는가?)
비즈니스 컨설팅의 특성	3. 외부 비즈니스 컨설팅과의 비교	3.1. 외부 비즈니스 컨설팅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면 외부 컨설팅과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3.2. 외부 비즈니스 컨설팅과 비교하였을 때 교내 비즈니스 컨설팅의 장점은?
		3.3. 외부 비즈니스 컨설팅과 비교하였을 때 교내 비즈니스 컨설팅의 단점은?
비즈니스 컨설팅의 향후 활용방안	4. 교내 창업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 컨설팅의 활용방안	4.1. 현재 비즈니스 컨설팅이 교내의 교과목 또는 비교과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4.1.1. 교과목 또는 비교과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4.2. 향후 비즈니스 컨설팅이 교내 교과목 및 비교과로 연계·활용된다면 이러한 상황을 긍정적(또는 부정적)으로 보는가?
		4.3. 비즈니스 컨설팅이 비교과 또는 교과목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을 도출해야 할지?
		4.4. 현재의 비즈니스 컨설팅이 유지된다고 할 때 그 한계점은?

Ⅳ. 연구 결과

4.1. 대학생 창업 맞춤형 교육의 실태

<표 5> 교내 비즈니스 컨설팅에 참여했던 이유(목적)

질문 문항	대표 예 인용문
교내 비즈니스 컨설팅에 참여했던 이유(목적)는?	"교수님이 추천해서 처음 상담을 받게 됐어요. 학교에서 제가 하고 싶은 사업을 도와준다고 해서… (중략) 전문가가 잘 알려줄 거라는 기대가 있던 것 같아요. (A1)"
	"사업계획서와 아이디어를 검토받고 싶어서 신청했어요. 학교 포탈사이트에서 검색하다가 (컨설팅이 가능하다는 것을) 봤고, 학교에서 창업을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궁금했어요. 제 사업계획서에 도움이 될지…(A5)"

본 연구에 참여한 9명의 연구대상자는 교내 비즈니스 컨설팅에 참여했던 목적에 대해 대부분 창업에 대한 전문적 교육과 자신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받고 싶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들 대다수가 컨설팅을 받을 당시 이미 사업화를 구상하는 아이디어 또는 아이템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으며, 단순한 흥미나 호기심 수준이 아닌 창업가로서의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본인의 아이디어 또는 아이템이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지 등 사업의 전반적인 타당성을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즈니스 컨설팅을 요청한 경우가 많았다.

<표 6> 교내 비즈니스 컨설팅을 신청한 이유

질문 문항	대표 예 인용문
교외 컨설팅을 받아본 적이 있었는지? 없었다면 그 이유는?	"다른 곳에서 컨설팅이 있는지도 아예 몰랐어요. (A2)" "군대 가기 전에 한 번 받아봤는데, 그 이후론 안 받았어요. 정말 궁금할 때만 움직이는 편이어서… (중략) 요즘 친구들은 듣기 싫은 소리에 약한 것 같아요. 내 스스로 컨설팅을 뭘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는 거고. (A9)"
교외 컨설팅이 아닌 교내 컨설팅을 신청한 이유는?	"학생들 입장에선 제일 접근하기 쉬워요. 우리 학교가 제일 편하니까. 심리적으로 부담없기도 하고.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신뢰감이 들죠. 단국대가 한마디로 보증을 서주는 거고, 최소한의 필터링이 된 사람들이 컨설팅을 해줄 것 같아요. (A6)" "다른 곳을 찾아가기엔 무서웠어요. 좀 무시받을까봐. 이 정도 수준으로 외부 컨설팅을 받는 게 우스워보일수도 있잖아요. 또 외부 컨설팅을 받을 때 금전적인 부분도 걸렸어요. 그래서 무료로, 혹시 학교에서 창업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알아보다가 무료로 진행하는 걸 알게 돼서 신청했고… (A8)"

참여자들은 대체로 교내 컨설턴트에 대한 강한 신뢰감을 보였으며, 이는 학교에서 비즈니스 컨설턴트와의 고용 계약을 체결할 때 충분한 검증을 거쳤을 것이라는 믿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가에게 무료로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드러내었으며, 이러한 기대가 교내의 비즈니스 컨설팅을 신청한 주된 이유로 보인다. 한편 참여자 중 4명은 외부 비즈니스 컨설팅(정부 컨설팅, 사기업 컨설팅 등)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였는데, 이는 현재 창업에 관심을 가진 대학생들의 '비즈니스 컨설팅'에 대한 낮은 인지 수준을 방증한다.

<표 7> 맞춤형 창업교육으로서의
교내 비즈니스 컨설팅에 대한 인지 실태

질문 문항	대표 예 인용문
비즈니스 컨설팅이 맞춤형 창업교육에 속한다고 생각하는지?	"혼자서 스스로 피드백을 줘보려고 시도해본 적은 있지만… (중략) 전문적인 지식이 아닌 뜬구름 잡는 학습인거죠. 뭐가 부족한지 모르니까. 그런데 컨설팅은 지금 제가 어디가 부족한지 맞춰서 전문적으로 알려주고, 또 부족한 점을 알 수 있는 기회니까 그렇다고 생각해요. (A3)" "컨설팅이 원래 맞춤형 교육 아닌가요? 고객 한 사람한테만, 맞춰서 전문가가 서비스 해주는 거… (A7)"

참여자들의 대다수는 비즈니스 컨설팅을 맞춤형 창업교육으로 인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비즈니스'와 '컨설팅'이라는 용어에서 기인하는데 참여자들은 비즈니스라는 단어에서 '창업'과 '경영'을 떠올리는 경향을 보였으며, 컨설팅이라는 단어에서는 '전문성', '세부성', '상세함' 등을 연상하였다. 이러한 용어에서의 연상을 토대로 자연스레 교내에서 진행하는 비즈니스 컨설팅을 창업자들을 위한 맞춤형 창업교육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다만 이들은 컨설팅을 교육적 측면으로만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대학생들의 창업지원에 대한 인식이 '금전적 지원'과 '교육적 지원'으로 대분류되는 경향을 드러냄과 동시에 현재 대학에서의 창업지원이 통합적인 형태로 학생들에게 인지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표 8> 교내 비즈니스 컨설팅을 신청한 이유

질문 문항	대표 예 인용문
교내 비즈니스 컨설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매우 만족이요. 전문적으로 다방면으로 창업하신 분들을 컨설팅해주신 상담사님이 해주신거니까, 저도 처음 도전하는 단계에서 정보력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적재적소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신 것만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고… (A4)" "매우 긍정이요. 창업이란 게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작했는데, 사람마다 자신의 수준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비즈니스 컨설팅을 받으면서 그걸 단계별로 알 수 있었어요. A라는 단계에서는 이걸 해야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수준에 맞춰서 컨설팅을 해주시니까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었어요. (A6)"
컨설팅에 관한 접근성과 편의성은 어떠한지?	"교수님께서 처음에 추천해주셔서 찾아봤는데 (컨설팅 신청이) 찾기 좀 어렵긴 했어요. 학교 홈페이지에서 배너, 이것저것 누르다 보니까 거기로 우연히 들어가서 아, 이렇게 하는구나… (A1)" "학교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바로 나와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편했어요, 저는. (A5)"

참여자들은 교내 비즈니스 컨설팅에 대해 1명(만족)을 제외하곤 모두 '매우 만족'을 선택하였다. 그 이유로 대부분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참여자들이 비즈니스 컨설팅을 신청한 본래의 이유이자 목적이었던 '아이템(또는 아이디어)에서 부족한 부분을 알고 싶은 욕구'가 충족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자는 구체적으로 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어떤 점에서 미흡한 부분이 보완되었다고 느꼈는지를 추가적으로 질문하였다. 그러자 참여자들은 '정보'를 주로 답하였는데, 여기서의 정보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창업지원사업이나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의 투자유치 관련 정보를 단순히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참여자들의 개별적인 상황에서 창업 성공을 위해 어떠한 부분을 보완해야 할지 단계별로 추진 일정 등을 세워주고 이에 맞춰 참여자들이 진행해야 할 '과업'을 알려준 것까지 모두 포함한다. 특히 후자의 부분은 참여자들의 개별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컨설턴트가 해결책을 제시해줬다는 점에서 학습률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만족'을 선택한 1명의 경우 '매우 만족'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런데 좋지 않은 부분은 체계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바깥에서 컨설팅하는 것은 어떤 순서가 있는데 교내에서는 사실

상 순서가 없어요. 짜여진, 그게 없으니까. (순서가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물론 컨설팅이란 것 자체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 맞지만, 교내에서 컨설팅을 진행하는 건 그때그때 질문에만 답해주고 끝나요. 이럼 결국 후속 조치로 하는 경우만 돼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사업도 알고 하는 사람은 필요한 부분만 콕 찝어서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창업을 잘 모르는 사람은 뭘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는 거죠. (A3)"

이러한 A3의 답변은 현재 D대학교의 창업교육 현황과 연결지어볼 수 있다. D대학교 창업교육지원의 경우, 교과와 비교과 교육이 각각 단발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비즈니스 컨설팅 역시 포털사이트를 보고 신청한 학생들만 컨설팅을 진행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즉 A3은 교외 비즈니스 컨설팅의 경우 아이디어 개발부터 시제품 개발, 판로 형성 등 실제 시장 진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교육과정이 존재하고 그 과정에 맞춰 비즈니스 컨설팅이 이루어지는 데 반해 교내 비즈니스 컨설팅은 교과, 비교과, 컨설팅이 각각 단발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 것이다.

한편 연구대상자들은 컨설팅을 신청하는 데 있어, 접근성과 편의성의 수준을 판단하기에는 의견이 나뉘었다. 4명의 대상자는 신청이 쉽다고 보았으나 다른 5명의 대상자는 신청이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는 평소 학교 포털사이트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였는지에 따라 나뉜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 컨설팅의 안내 및 홍보가 교내 포털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포털을 자주 이용하는 대학생의 경우 비교적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으나, 그 외의 대학생들은 주변 지인이나 직접 찾아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 교내 비즈니스 컨설팅을 소개해준 주변 지인에 해당하는 이들은 학과 교수에 재직 중인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즉 학생들이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신뢰나 친밀감을 지닌 이들이 대부분이었기에 향후 학생들에게 단순한 포털 홍보보단 '버즈 마케팅(Buzz Marketing)' 개념의 홍보가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4.2. 비즈니스 컨설팅이 창업역량 강화에 끼치는 영향

현재 여러 대학이 교내 창업 활성화와 학생들의 창업역량 강화를 위해 '창업 특강', '창업 동아리' 등 여러 비교과 활동을 시도하고 있으나, 이를 맞춤형 창업교육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맞춤형 교육은 개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차별화·특화된 방식의 평가, 피드백 등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창업 특강은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교육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창업 동아리 또한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아리를 개설하여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이기에 맞춤형 창업교육이라고 정의하기엔 다소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즈니스 컨설팅을 맞춤형 창업교육의 대표적인 사례로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비즈니스 컨설팅과 같은 맞춤형 창업교육이 대학 창업교육에 있어 유용한지를 조사하였다.

<표 9> 맞춤형 창업교육의 유용성 조사

질문 문항	대표 예 인용문
교내 비즈니스 컨설팅과 같은 맞춤형 창업교육이 대학 창업교육에 있어 유용하게 기능할 것으로 여겨지는가? 유용하다면(또는 유용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처음에 저랑 비슷한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의 인스타를 들어가 봤는데, 저 사람이랑 내가 파는 게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은데도 저 사람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사주고 판매가 잘 되는데, 내가 인터넷에 올리면 왜 사람들이 안 찾을까? 이런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컨설팅을 받으면서 내가 잘못된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딘지 알고 고칠 수 있게 됐어요. 그런 점에서 맞춤형 창업교육이 대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봐요.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 네, 맞아요. (A1)" "유용하고, 또 필요하죠. 대학생 때는 창업에 대한 눈을 떠야 하는데, 맞춤형 교육이 도움이 되죠. (A3)"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현업에 있는 컨설턴트의 입장에서 창업자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사업계획서를 쓸 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많이 말씀해주시니까. 이런 건 다수를 상대로 하는 특강보다 훨씬 큰 장점이에요. (A8)"

비즈니스 컨설팅과 같은 맞춤형 창업교육이 대학창업교육에 있어 유용하게 기능할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모든 참여자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참여자들은 초기 또는 예비창업자에 속하는 경우가 많아 스스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조차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창업의 특성상 개별 상황, 수준, 업종이나 아이템 등이 각기 달라 대학에서 일괄적인 강의 형태의 교육만을 제공하는 것은 학생들이 느끼는 부족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채워주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결국 맞춤형 창업교육은 대학 창업교육이 원활하게 운영되는 데 있어 주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창업역량 강화'에서 역량의 주체를 창업자(또는 창업팀)와 기업으로 분류하였다. 연구 결과 창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참여자 모두 비즈니스 컨설팅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긍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였으며, 나아가 이를 통해 스스로 성장하였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이유(중복 이유 선택 가능)로 '문제해결능력 강화(3명)', '비판적 사고력 함양(3명)', '자립심과 독립성 능력 증대(2명)'를 말하였는데, 참여자들의 대표적 답변은 다음과 같다.

<표 10> 교내 비즈니스 컨설팅이 창업(또는 창업팀)에게 끼친 영향력

질문 문항	대표 예 인용문
교내 비즈니스 컨설팅이 창업자 또는 창업팀에게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는가?	"생각과 삶이 달라졌어요. 제일 달라진 건, 회사가 인생을 책임져주지 않는단 사실을 알게 됐어요. 시장이 돌아가는 원리를 알게 되면서 소비자의 삶뿐 아니라 공급자로서의 시각도 깨닫게 됐고요. 한 마디로 세상을 좀 더 능동적으로 살게 됐다고 해야 할까. 확실히 계속 업데이트하는 삶을 살려고 하게 됐어요. (A3)"
영향을 받았다면 구체적으로 교내 비즈니스 컨설팅을 통해 창업자 또는 창업팀에게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영향이 없었다고 생각하는가?)	"상담하면서 들었던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이 사업계획서에서 한 마디, 한 마디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이게 맞나? 근거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아이디어를 낼 때도 그냥 내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요즘 트렌드가 원하는 아이디어를 내고, 이 아이디어가 왜 먹힐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됐어요)…(A4)" "어떤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대처하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문제가 발생하면 그냥 문제라고만 생각해서 그냥 해결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컨설팅 받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이렇게, 해결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어요. 방법을 모르면 컨설팅 통해서 알게 되고. 문제 해결에 능숙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 같아요. 꼭 창업이 아니더라도…(A6)"

즉 비즈니스 컨설팅은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등과 같은 고등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우는 데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비판적 사고기술은 학습자가 생각할 수 있는 전문가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이기에 이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대학교육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로 인식되며(시지현, 2018), 학부교육은 단순한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는 기초교육에서 벗어나 문제해결능력 등 새로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윤유진·이연주, 2018). 이러한 기존의 연구를 고려해 본다면, 해당 교육은 우수한 창업가를 만드는 것뿐 아니라 대학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기인한다.

<표 11> 교내 비즈니스 컨설팅이 본인의 기업 (또는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에 끼친 영향력

질문 문항	대표 예 인용문
교내 비즈니스 컨설팅이 본인의 기업(또는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에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는가?	"수익성 계산처럼 '진짜 비즈니스'가 뭔지 알려준다는 측면에서는 영향을 크게 받은 것 같아요. (A2)"
영향을 받았다면 구체적으로 교내 비즈니스 컨설팅을 통해 본인의 기업(또는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영향이 없었다고 생각하는가?)	"많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는데, (중략) 투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초기 스타트업 대표들은 몰라요. 거래에서의 사람 관계나 제안서라던지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가게끔 해주신 부분이… (A5)" "컨설팅이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사업계획서를 쓸 때 '매뉴얼'이 있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아, 나도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게 된다면 좀 쉽겠구나. 짜여져 있는 틀이 있는 거구나 하는… (A7)"

비즈니스 컨설팅에서 참여자 중 대다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싶은 욕구가 존재하는 상태였으며, 컨설팅을 통해 사업계획서라는 결과물을 도출하거나 기존의 사업계획서를 개선했다는 점에 만족감을 크게 드러냈다. 사업계획서는 투자결정권자들이 기업을 일차적으로 검증하는 요인이며 전체적인 사업 모델의 청사진을 그려주는 역할을 수행하기에(안혜진·이승하, 2021b), 최근 창업 관련 교육에 있어 주요한 교육과정으로 그 기능을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사업계획서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능동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방법을 찾아간다는 점에서 PBL(Project Based Learning) 학습법과도 결을 같이 한다. PBL 기반의 창업교육과 PBL 기반의 다른 교과목 간의 PBL 평가요소(PBL 기반 수업 분위기의 조성, 문제의 제시, 자기주도적 자율학습, 지식 습득, 창의적 문제해결, 정리, 평가) 차이를 규명한 결과, 창업교육은 다른 교과목에 비해 더 높은 점수를 제시하였으며(김연정, 2017), PBL 및 플립러닝 방식의 기업가정신교육방법은 개인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에(남정민, 2017), 본 사례의 비즈니스 컨설팅에 대해 응답자들이 긍정적 반응을 표한 이유도 이러한 학습 방법을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4.3. 외부 비즈니스 컨설팅과의 비교

본 연구는 참여자들이 비즈니스 컨설팅에 가지고 있는 기대와 컨설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외부 비즈니스 컨설팅과의 인식을 비교하는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외부의 비즈니스 컨설팅과 비교하였을 때, 교내 비즈니스 컨설팅에는 어떤 강점과 약점이 있는지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내 비즈니스 컨설팅만의 특징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표 12> 외부 비즈니스 컨설팅과 교내 비즈니스 컨설팅의 차이점

질문 문항	대표 예 인용문
외부 비즈니스 컨설팅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면 외부 컨설팅과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다른 곳은 학교에 비해선 돈이 들거나, 돈이 안 드는 곳이면 단발성인 경우가 많았어요. 한번 상담해주면 1회 상담해주고 끝. (A6)" "가장 큰 건 무료이냐, 유료이냐의 차이? 교내 컨설팅은 돈을 내지 않지만, 이정도 수준을 바깥에서 받으려면 몇백만 원 정도 줘야 하니까. (A7)"

참여자들은 교내 비즈니스 컨설팅과 외부 비즈니스 컨설팅의 대표적인 차이에 대해 '비용'을 제시하였다. 외부 비즈니스 컨설팅의 경우, 전문가 매칭 서비스 플랫폼인 '숨고'에 따르면 경영 컨설팅 비용은 평균 35만 원이며, 최고 비용은 90만 원에 달하였다((주)브레이브모바일, 2015). 이는 학생들에게 있어 무료로 제공되는 교내 비즈니스 컨설팅과 비교해 경제적·심리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전가하기 마련이다.

<표 13> 외부 비즈니스 컨설팅과 비교하였을 때 교내 비즈니스 컨설팅의 장단점

질문 문항	대표 예 인용문
외부 비즈니스 컨설팅과 비교하였을 때 교내 비즈니스 컨설팅의 장점은?	"○○구에서도 받고, ○○○ 지원단에서 하는 컨설팅도 받아봤어요. 또 ○○ 지역에서 하는 정부지원 컨설팅도 받았는데, 컨설턴트님마다 차이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다른 곳은 두루뭉술하게 말해주는 기분이었거든요. 근데 교내에서 만난 컨설턴트는 계속 꾸준히 제 사업과 같이 가주면서 어디가 잘못됐는지 짚어주고, 또 저한테 도움될 것 같은 정보가 있으면 계속 연락 와서 알려주시고… 신경을 써준단 느낌. (A5)" "예비창업자 입장에서는 학교가 더욱 딱 붙어서 해주니까 잘 맞았어요. 또 기관에서 진행하는 건 정해진 주제에 대해서만 컨설팅을 해주는데, 학교에서는 제가 궁금한 부분, 원하는 방향에 맞춰 샘(컨설턴트)이 상담을 해주니까, 형식상으로 상담한다는 느낌이 없었고…(중략)… 한 번은 밤 12시 넘어서까지 봐주시니까 저도 허투루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컨설팅을 받았는데 말아먹으면 사람이 아니다. (A6)"
외부 비즈니스 컨설팅과 비교하였을 때 교내 비즈니스 컨설팅의 단점은?	"교내는 학생 위주로 컨설팅도 짜다 보니까 20대 초중반 정도로 딱 타겟팅한 느낌. 근데 사업을 하면 결국 바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최소 30대 이상, 40대들, 50대들 이러니까. 조금 더 세상 물정 알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A3)" "개발자나 업체를 소개시켜줬으면 좋겠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컨설턴트)이 개인 업체를 소개시켜주는 건 안된다고 하시니까… (A5)"

외부 비즈니스 컨설팅의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비즈니스 컨설팅은 정해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다수이다. 또한 사기업의 비즈니스 컨설팅은 횟수 또는 시간에 비례하여 금액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받는 것은 금전적으로 부담을 주기 마련이다. 이러한 외부 비즈니스 컨설팅과 비교하였을 때, 교내 비즈니스 컨설팅은 수개월 이상씩 꾸준히 진행한 경우가 다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대학생과 컨설턴트 사이는 일반적인 공급자(컨설턴트)와 소비자(고객, 대학생)의 관계를 넘어 일종의 '사제(師弟)관계' 또는 '동료관계'와 같은 새로운 애착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르게 된다.

한편 교내 비즈니스 컨설팅의 단점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는 대다수가 '학생 위주'로 치우쳐 있다는 의견을 말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교육기관의 특성상 컨설팅이 너무 보수적으로 진행되어 공급업체를 소개받고 싶어도 쉽게 해주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사업 현장에서의 생생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었다.

4.4. 교내 창업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 컨설팅의 활용방안

<표 14> 비즈니스 컨설팅의 역할

질문 문항	대표 예 인용문
현재 비즈니스 컨설팅이 교내의 교과목 또는 비교과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교과목은 아닌 것 같고, 비교과 쪽인 것 같아요. (A7)" "비교과적인 역할은 확실히 해주는 거 같아요.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있어요. 저는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텐 창업교과목과 창업컨설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으로선 오히려 창업컨설팅에 의존하는 거 같아요. 교과목만 들어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A4)"
교과목 또는 비교과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교과목은 말 그대로 수업 아닌가요? 학점이 나가야 하고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아닐 거 같고, 교과목이 아닌데 학교에서 교육을 해주려고 진행하는 거면 다 비교과라고 생각했어요. (비교과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나요, 컨설팅이?)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적어도 창업 쪽에선 창업컨설팅 통해서 많이 배웠으니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구나, 하고. (A7)" "학교에서 하는 비교과 프로그램들 중에 가장 큰 도움이 됐어요, 일대일 컨설팅이. (다른 비교과 프로그램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음, 일단 강연? 특강 같은. (A8)"

연구 결과 교내 비즈니스 컨설팅이 '교과목'의 역할을 한다고 인지하는 경우는 한 명도 없는 반면, '비교과'의 역할은 충분히 수행한다는 점에 모든 참여자가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학점을 부여하거나 15주 내지의 교육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외의 나머지 교육은 비교과로 보는 인식 때문이다. 또한 참여자들은 교내 비즈니스 컨설팅이 일대일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만족감을 보였다.

<표 15> 비즈니스 컨설팅의 활용

질문 문항	대표 예 인용문
향후 비즈니스 컨설팅이 교내 교과목 및 비교과로 연계·활용된다면 이러한 상황을 긍정적(또는 부정적)으로 보는가?	"좋아요. 학생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A5)" "학교에서도 그냥 창업하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컨설팅이나 이런 걸 해주면서 살살 다가오는 게 훨씬 효과적일 거 같아요. (A2)" "학과에서 필수적으로 듣는 수업이었으면 좋겠어요. 도예과는 솔직히 회사로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고 창업을 하거나 그러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졸업 때까지 80% 이상은 사업계획서 자체도 몰라요. 그만큼 학교에서 노출을 안 시켜준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A4)" "아예 창업이 필수교과목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글쓰기' 같은 교과목처럼요. (A6)"

비즈니스 컨설팅이 교내 교과목 및 비교과로 연계·활용되는 점에 대하여 참여자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는 컨설팅이 학생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고, 창업을 하

나의 진로로 고민하게 하는 기회를 준다는 이유에서 비롯된다. 다만 비교과인 창업 공모전·창업 네트워크·창업 특강과는 연계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았으나, 교과목과 연계가 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이론 정립이나 풍부한 자료의 수집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그럼에도 참여자들은 창업이 필수교과목으로 지정되길 바라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경향은 특히 예체능 계열 학생들에게서 두드러졌다. 이들은 이공계열 학생들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학과 학생들이 취업보다 창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창업에 대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다는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이들은 비교과와 연계할 방안에 대해서는 교내에서 주최하는 창업 공모전이나 창업 동아리에 선발되는 과정에서 비즈니스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비즈니스 컨설팅 또한 일종의 비교과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는 비교과와 비교과 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교과목 연계 방안에 있어서는 교과목을 들을 때 의무적으로 컨설팅을 듣는 과제를 내는 방식부터 비즈니스 컨설팅에 나온 핵심 내용을 기반으로 필수 교양 교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응답까지 다양한 방식과 유형으로 아이디어가 도출되었다. 특히 대상자들은 이 과정에서 '대학글쓰기' 과목과 비교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글쓰기 과목이 '글'이라는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창업 관련 교과목 역시 사업계획서나 시제품 제작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기에 이러한 유사점에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교과와 교과를 막론하고 나타난 공통적인 의견은 '의무적'으로 컨설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학생들이 대학 생활 내 1번 이상은 비즈니스 컨설팅을 강제적으로라도 경험하게 해, 실제로 창업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6> 교내 비즈니스 컨설팅의 연계방안

질문 문항	대표 예 인용문
비즈니스 컨설팅이 비교과 또는 교과목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을 도출해야 할지?	"실제로 한번 결과물을 만들어오거나 밖에 나가서 판매를 해 보는 식으로, 그런 경험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고 또 천지차이라고 생각해요. 남들이 짜놓은 판에서 일을 하는 것과 자신이 실제로 만들어서 매출을 내보는 것이 정말 다르기 때문에 창업 교과목이 이루어져 있다면 정말 다르지 않을까. 그래야 내가 창업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알 수 있을까. 다른 학생들이 의도적으로라도, 억지로라도 경험을 해 봤으면 좋겠고… (A6)" "아이디어 경진대회랑 연결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선발된 학생들은 컨설팅도 의무적으로 받고, 또 그렇게 성실하게 좋은 아이디어 내면 돈을 계속 지원해주고. (A8)" "정말로 창업을 해본 사람을 만나게 해주거나 창업에 관련된 걸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학생들은 스스로 어떤 컨설팅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니까, 교수님들이나 컨설턴트 샘들이 먼저 해주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A9)"

<표 17> 현재 비즈니스 컨설팅의 한계점

질문 문항	대표 예 인용문
현재의 비즈니스 컨설팅이 유지된다고 할 때 그 한계점은?	"비즈니스 컨설팅만 한 두 번 받는 걸로는 의미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아예 마인드를 바꾸려면 교과든, 비교과든, 컨설팅이든 집중적으로 하나의 방향을 보고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은 따로 각자 노는 느낌이에요. (A7)" "창업에 대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 대해 씻겨주지 못하는 느낌이에요. 하나씩 차근히 할 수 있도록 기초 컨설턴트, 심화 컨설턴트 이렇게 창업도 단계별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전문분야로 나눠도 좋을 거 같아요. (A8)"

참여자의 대다수는 현재의 비즈니스 컨설팅만으로는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보았다. 컨설팅은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개선하여,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컨설팅 하나만으로 학생들이 만족할 만한 정보 전달, 이론 지식 구축 등을 해나가기엔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컨설팅이 주된 역할보다는 부수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다만 참여자들의 의견을 고려하였을 때 비즈니스 컨설팅에서 주로 나오는 질문이나 주제 등을 교과목 체계화에 있어 강의 주제로 반영시킬 필요는 있다.

'부수적인 역할'이 단순히 일시적이고 단발적인 과제를 부여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기가 부족한 채로 비즈니스 컨설팅만을 듣는 것은 학생들을 스스로 '무엇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에 놓이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과목 수업은 '기업가정신', '아이디어 개발', '비즈니스 모델 구축', '실전 창업' 등 각 콘셉트를 구축한 상태로 수업 전반은 이론형으로, 연계 과제나 시험 등은 실습형으로 분류하여 융합 형태를 띠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창업 수업을 들으면서 과제를 해 본 적은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학점 받으려고 후딱, 후딱 끝냈던 것 같아요. 뭘 하는지도 잘 몰랐고. 근데 이번 컨설팅을 받으면서 (그 수업을 생각했더니) 책임감도 들고 내가 이 정도 수준에서는 뭘 해야 하는지도 알았고… (A2)"

참여자들은 대체로 비즈니스 컨설팅 자체에는 만족하였으나 교내의 창업교육 운영에 있어 커리큘럼이나 구조 등이 체계화되지 않아 연계성이 낮고 이로 인해 효율이 떨어진다는 불편함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궁극적으로 교육 시스템이 통합 연계되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단발적이고 일시적이며, 각개전투 형태의 교육으로서는 충분한 기대효과를 도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에 교과목과 비교과, 실습 등이 연계된 교육을 설계하고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교과목과 연계할 수 있는 비교과(Co-curriculum) 교육 시스템 구축 연계방안을 제시해본다. 이는 교과목 수업 전, 수업 중, 수업 후로 분류하여 각각의 상황에 맞게 비즈니스 컨설팅을 설계하고 연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수업 전엔 학생의 현재 상황과 욕구, 창업 의지, 아이템의 진척도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개별적인 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어 수업 중과 연계되는 비즈니스 컨설팅은 학생이 교과목 수업을 들으면서 이해가 어려운 내용에 대한 질의를 중심으로 학생의 학습능력을 높이는 동시에 교과 수업에서 배운 바를 적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교과목과 컨설팅 간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업 후에는 학생 평가를 진행하여 이를 기반으로 한 개선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의 전반에서 비즈니스 컨설팅은 유용한 도구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Ⅴ. 결론 및 제언

창업이 하나의 진로로서 주목받게 되면서, 대학은 어떤 식으로 창업을 지원해야 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떠안게 됐다. 창업가의 꿈을 꾸는 학생들은 갈수록 많아지고 있으나 창업 관련 교육 기획 및 실행, 충분한 예산 확보 등에 있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상황에 착안하여 대학에서 '어떤' 창업지원 시스템을 설계 및 구축해야 할지를 살펴보았으며, 특히 교육적인 측면에 맞춰 이에 대한 시행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연구 질문과 이에 따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RQ 1] 비즈니스 컨설팅이 맞춤형 창업교육으로 작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참여자들은 대부분 비즈니스 컨설팅이 맞춤형 창업교육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이들은 비즈니스 컨설팅을 맞춤형 교육으로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비즈니스 컨설팅이라는 용어에서 연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학의 창업교육이 주로 교과목 강의나 특별강의(특강) 등 '강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수를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강의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개인의 상황과 욕구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능적으로도 맞춤형 창업교육으로 바라볼 여지가 충분하다. 즉 비즈니스 컨설팅은 창업 초반에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등이 어렵게 느껴질 참여자들에게 부족한 점과 개선 방향을 알려주었기에 교육적 관점에서 유용하게 기능하였다.

둘째, "[RQ 2] 비즈니스 컨설팅은 대학생들의 창업역량에 영향을 끼쳤는가?"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참여자들은 중복 응답이 가능한 인터뷰를 통해 '문제해결능력 강화', '비판적 사고력 함양', '자립심과 독립성 능력 증대' 등의 이유를 말하며 창업자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긍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그뿐 아니라 기업의 운영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고 말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을 통해 외부 투자유치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 이어 정부, 공공기관, 사기업 등 외부 비즈니스 컨설팅과 비교하였을 때 비용적 측면과 애착관계에서 강점이 있다고 보았으나 교육기관의 특성상 보수적 성향이 있어, 컨설팅을 진행하면서도 외부 비즈니스 컨설팅과는 달리 업체를 소개받는 것이 어렵고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전달받는 것도 어렵다는 참여자들의 의견이 존재하였다.

결국 대학에서는 창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교육을 효과적 방식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비즈니스 컨설팅과 같은 맞춤형 창업교육을 중심으로 한 대학창업지원의 발전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해본다.

첫째, 창업이라는 특성상 사업 준비 및 운영 과정에서 변수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문적 지식을 지닌 교내의 컨설턴트 또는 창업전담 교수가 비즈니스 컨설팅을 주기적으로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상시로 만날 수 있는 전일제 전문가가 필요하며, 컨설팅의 유형 역시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비즈니스 컨설팅에 있어서도 시제품 개발, 아이디어 고도화, 투자 유치, 마케팅, 유통 등 다양한 주제가 있기 때문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학생들과 연결해 준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만일 예산 등의 문제로 인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이 어렵다면 취창업지원처, 산학협력단, LINC+사업단 등 교내 유관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가를 하나의 인재 풀(Talent Pool)에 모아 적절한 시기에 활용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안이다.

둘째, 일회성 교육이나 다수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아닌 개별 창업팀 또는 창업 아이템에 적합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맞춤형 교육'이 비교과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자들이 비즈니스 컨설팅에 긍정적인 반응을 표한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눈높이와 상황을 고려하여 컨설팅을 받을 때마다 최선의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제언은 특강 등의 강연도 이전과는 다른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진다. 특강이라 할지라도 강사의 일방적인 교육이 아닌 학생의 주도적인 질문이 병행되는 질의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렇게 된다면 창업 비교과는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한 집중 교육으로 방향성을 설정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이다. 즉 창업이라는 진로에 대해 확고한 결심을 굳힌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수 정예'의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대학에서의 창업교육이 다수를 대상으로 한 교양 수준의 교육과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한 창업 '엘리트(Elite)' 양성 교육의 두 갈래로 분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비교과에 속하는 교내 비즈니스 컨설팅은 창업·경영 교과목 및 타 비교과와 연계되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기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내 유관부서 간 협조체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동 운영 프로그램, 창업 관련 정보 공유, 관련 교육 홍보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일원화된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는 교내 유관부서 간 소통 창구 역할을 맡게 되며, 교과목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의 중복을 방

지하고 명확한 역할 및 업무 분담을 하게 되는 기틀로서 기능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대학에서 지속적으로 비즈니스 컨설팅을 경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컨설팅의 만족도와 이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창업교육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나아가 대학 창업지원의 방향성을 짚어보았다는 점에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의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결과는 대학 창업지원에서 비교적 다뤄지지 않은 비즈니스 컨설팅을 중심으로 참여자들의 인식 실태를 확인하고, 이를 통하여 추후 통합 연계 형태의 창업교육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주목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지닌다. 둘째, 대학에서 기획 및 진행하는 창업지원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설정하고 양질의 창업률을 높여 대학이 창업이라는 새로운 진로를 돕는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주요한 제안을 했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의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대학 창업지원에 대한 관심이 국가적으로 늘어나는 현재, 대학생들의 심층적인 인터뷰를 통해 실제의 창업지원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를 지니게 된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두 가지의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연구 대상이 D대학교 한 곳이기에 다양한 표본을 확보하지 못해 이를 전체 대학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D대학과 같은 4년제 대학과 전문 대학은 창업교육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목표와 방향성 등에 차이가 존재하기에 후속연구에서는 이를 보다 면밀하게 분류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생 위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기에 보다 넓은 범위에서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대학 창업교육 관계자, 교수 등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여 연구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덧붙여 비즈니스 컨설팅과 같은 맞춤형 교육이 대학 창업지원에 활용되었을 때의 효과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만족도 조사와는 다른 방법론적 관점에서의 분석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

강진숙(2008). 한국 비판언론학의 질적 연구방법 적용사례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43(3), 81-113.

곽동신·정화영·김명숙(2016). 대학의 창업교육 서비스 품질이 교육만족과 창업역량,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1(4), 37-48.

고기숙·이면재·김영은(2012).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적 사용 경험 연구.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13(4), 501-516.

교육부(2021). *국민과 함께 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 계획(안)*. Retrieved(2022.12.19.) from https://if-blog.tistory.com/11998.

구자억·김숙이·김한나(2020). 홀리스틱 교육 관점에서 대학창업교육의 평가 모형 탐색. *홀리스틱융합교육연구*, 24(3), 1-18.

김기홍·김용태(2014). 창업 멘토링 교육 요인이 창업교육 만족도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9(5), 33-41.

김미화·윤관식·박지원(2020). K대학의 역량기반 맞춤형 학습 지원을 위한 탐색적 연구. *실천공학교육논문지*, 12(1), 49-60.

김연정(2017). PBL 교수법에 기반한 대학 창업교육 학습 사례 연구. *한국창업학회지*, 12(3), 285-309.

김영천(2012). *질적연구방법론 1: Bricoleur*.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김윤선·이일한(2022). 대학생의 창업교육이 창업기회를 매개로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창업학회지*, 17(2), 189-213.

김현영·이철규·서철승·오인하(2013). 중소벤처기업의 경영컨설팅 프로세스가 조직역량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영공학회지*, 18(3), 63-81.

남정민(2017). 기업가정신 온라인교육의 효과성 검증: 플립러닝 및 PBL 기반 기업가정신교육 적용 사례. *벤처창업연구*, 12(2), 31-40.

남정민·유현경·김윤희·강은정·이현석·장경화·김수진(2022). 대학 창업지원제도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IPA분석: D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7(2), 53-64.

박나은(2022). *"내 일하며 내일 만들래요" 대학생 창업 쑥*. 매일경제, Retrieved from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5/444013/.

박남규(2020). 대학의 창업교육지원이 취업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5(4), 97-108.

박종범·양영석·김명숙(2020). 액티브 시니어의 경력지향성과 창업교육 만족이 창업의지와 창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5(1), 285-301.

박지유·양해술(2014). 창업가 특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업교육을 이수한 예비창업자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9(2), 97-107.

변지유·이장희(2020). 기업가정신역량기반 교육 연구: 대학 창업교육 고도화를 위한 EntreComp(Entrepreneurship Competence) Frame 도출. *벤처창업연구*, 15(6), 189-207.

서근원(2021). 맞춤형 교육의 대안적 해석과 실천: 그랭이 교육과 실천탐구. *교육인류학연구*, 24(4), 1-38.

설병문(2012). 창업교육연계의 효과측정모형 및 정책제안. *벤처창업연구*. 7(2), 9-1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20). *창업경영컨설팅*. Retrieved(2022.11.04.) https://www.semas.or.kr/web/SUP01/SUP0102/SUP010202.kmdc.

시지현(2018). 의과대학에서 논증 스캐폴드를 활용한 문제기반학습이 비판적 사고에 미치는 효과. *사고개발*, 14(1), 75-97.

안소영·조상미(2018). 청년창업자의 사업생존 영향요인: 일만족도 및 일적합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창업학회지*, 13(4), 85-115.

안혜진·이승하(2021a). 비대면 창업 멘토링의 이해와 창업지원사업의 발전을 위한 시론적 연구: 창업의지와 교육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창업학회지*, 16(2), 89-118.

안혜진·이승하(2021b). 사업계획서 교육이 창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창업학회지*, 16(6), 237-260.

윤영집·이종원(2022). 대학생 창업교육이 셀프리더십, 혁신행동 및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국 대학생을 중심으로. *직업교육연구*, 41(1), 23-42.

윤유진·이연주(2018). 대학 교양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국내·외 대학의 교양교육과정 비교연구. *교양교육연구*, 12(2), 259-286.

이국희(2011). *비즈니스 컨설팅*. 파주: 법문사.

이대식(2016). 맞춤형 교수에서의 '맞추는 것'의 본질과 성격. *통합교육연구*, 11(2), 187-216.

이신모(2017). 백세시대 창업교육의 의미와 심리적 영향요인 연구. *경영교육연구*, 32(6), 281-300.

이원철·최종인(2017). 지역연계 대학창업교육 방향 연구. *벤처창업*

연구, 12(6), 89-98.
이윤석(2017). 국가 간 비교를 통한 대학생 창업의지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2016년 글로벌 대학생 기업가정신 조사(GUESSS)를 중심으로. *한국창업학회지*, 12(5), 303-323.
이성호·김정음·남정민(2020). 대학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제도 분석을 통한 대학창업발전방안 연구: D대학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제도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5(4), 151-160.
이수용·이종원·이민영·장원섭(2020). 대학 창업담당자들이 인식하는 창업지원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직업교육연구*, 39(3), 67-86.
이정아·정성광(2020). 외국어특성화 대학생의 창업역량 증대를 위한 창업교육방안에 관한 연구. *경영컨설팅연구*, 20(3), 113-123.
이희은(2014). 디지털 노동의 불안과 희망: 대학생의 '대외활동'에 대한 심층 인터뷰. *한국언론정보학보*, 66(2), 211-241.
임한려·홍성표(2020). 기업가형 대학(Entrepreneurial University)을 위한 대학의 창업 성과 영향요인 분석. *벤처창업연구*, 15(2), 19-32.
전기수(2009). *중소벤처기업 경영컨설팅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정연수·조동환(2020). 대학생 창업의지 결정요인의 중요도 비교 연구. *한국창업학회지*, 15(4), 145-165.
정희엽·홍후조(2021).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4차 산업혁명시대 '맞춤형 교육' 연구 동향 분석. *교육방법연구*, 33(3), 433-454.
조영대(2005). *비즈니스 컨설팅 서비스* 서울: 남두도서.
㈜브레이브모바일(2015). *기업 경영 컨설팅 비용은 얼마인가요?*. Retrieved (2022.09.11.) from https://soomgo.com/questions/3221-%EA%B8%B0%EC%97%85-%EA%B2%BD%EC%98%81-%EC%BB%A8%EC%84%A4%ED%8C%85-%EB%B9%84%EC%9A%A9%EC%9D%80-%EC%96%BC%EB%A7%88%EC%9D%B8%EA%B0%80%EC%9A%94-.
중소기업벤처부(2022a). *2022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Retrieved 2022.06.15. from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126&bcIdx=1031000.
중소기업벤처부(2022b). *2022년 창업중심대학 모집 공고(수정)*. Retrieved 2022.06.15. from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310&bcIdx=1030557&parentSeq=1030557.
최영인·홍선주·박재현(2019). 국어과 예비교사를 위한 데이터 기반 맞춤형 수업 설계 프로그램 개발 연구. *교사교육연구*, 58(2), 221-236.
표원지·하환호(2015). 소규모 창업기업의 사업진단과 컨설팅을 위한 비즈니스모델캔버스의 활용 사례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10), 561-569.
한국직업사전(2019). *창업컨설턴트* Retrieved(2022.11.03.) https://www.work.go.kr/consltJobCarpa/srch/jobDic/jobDicIntro.do?pageType=jobDicIntro.
허선영·장후은·이종호(2017). 대학 창업 지원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8(1), 75-84.
홍종득·강현곤(2016). 한국대학 창업교육 현황 연구:학부·대학원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 중심. 한국벤처창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한국벤처창업학회 춘계학술대회*, 163-165.
황균정·경성림(2021). 창업교육 및 창업 컨설팅 프로그램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창업역량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9(6), 23-28.
Abrahamson, E.(1996). Management fash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1, 254-285.
An, H. J., & Lee, S. H.(2021a). An Exploratory Study for the Understanding of Contactless Startup Mentoring and the Development of Startup Support Programs: Focusing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Training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ity*, 16(2), 89-118.
An, H. J., & Lee, S. H.(2021b). Effect of business plan consulting on business start-up activities.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ity*, 16(6), 237-260.
An, S. Y., & Cho, S. M.(2018). What Makes Youth Entrepreneurs Survive?: Focusing on the Mediating Roles of Job Satisfaction and Person Job Fit.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ity*, 13(4), 85-115.
Bian, J. Y., & Lee, J. H.(2020). Entrepreneurship Competency-Based Education Research: EntreComp (Entrepreneurship Competence) Frame for Advancement of University Startup Educa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5(6), 189-207.
Block, P.(2011). *Flawless Consulting: A Guide to Getting Your Expertise Used*. John Wiley & Sons: United States of America.
Block, P.(2000). *Flawless Consulting: A Guide to Getting Your Expertise Used*. Joseey-Bass/Pfeiffer, 2nd ed.
Brave-Mobile Corp(2015). *How Much is the Cost of Corporate Management Consulting?*. Retrieved (2022.09.11.) from https://soomgo.com/questions/3221-%EA%B8%B0%EC%97%85-%EA%B2%BD%EC%98%81-%EC%BB%A8%EC%84%A4%ED%8C%85-%EB%B9%84%EC%9A%A9%EC%9D%80-%EC%96%BC%EB%A7%88%EC%9D%B8%EA%B0%80%EC%9A%94-.
Brown, L. S., & Eisenhardt, K. M.(1997). The Art of Continuous Change: Linking Complexity Theory and Time-paced Evolution in Relentlessly Shifting Organization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2, 1-34.
Canato, A., & Giangreco, A.(2011). Gurus or Wizards? A Review of the Role of Management Consultants. *European Management Review*, 8(4), 231-244.
Choi, Y. I., Hong, S. J., & Park, J. H.(2019).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Program for Data-Based Differentiated Instructional Design for the Korean Language Trainee Teachers. *Teacher Education Research*, 58(2), 221-236.
Creplet, F., Dupouet, O., Kern, F., Mehmanpazir, B., & Munier, F.(2001). Consultants and Experts in Management Consulting Firms. *Research Policy*, 30(9), 1517-1535.
Drucker, P. F.(1985). The Discipline of Innovation. *Harvard business review,* 63(3), 67-72.
Drucker, P. F.(1993). *Post Capitalist Society*. Butterworth: Oxford.
Dutta, D. K., Li, J., & Merenda, M.(2011). Fostering Entrereneurship: Impact of Specialization and Diversity in Education.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7(2), 163-179.
Fincham, R., Clarck, T., Handley, K., & Sturdy, A.(2008). Configuring expert knowledge: The consultant as sector

specialist. *Journal of Organisational Behaviour*, 29(8), 1145-1160.

Garavan, T. N., & O'Cinneide, B.(1994).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mes: A Review and Evaluation-Part 1. *Journal of European Industrial Training*, 18(8), 3-12.

Gibb, A.(2002). In Pursuit of a New 'Enterprise' and 'Entrepreneurship' Paradigm for Learning: Creative Destruction, New Values, New Ways of Doing Things and New Combinations of Knowledge.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Reviews*, 4(3), 233-269.

Greiner, L. E., & Metzger, R. O.(1983). *Consulting to management*. Prentice-Hall: New Jersey.

Gu, J. O., Kim, S. Y., & Kim, H. N.(2020). A Study on the Evaluation Model of College Start-up Education in Holistic Education. *Journal of Holistic Convergence Education*, 24(3), 1-18.

Hargadon, A.(1998). Firms as knowledge brokers: Lessons in pursuing continuous innovation.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40(3), 209-227.

Heo, S. Y., Jang, H. E., & Lee, J. H.(2017). Exploring the government policy for promoting university startups in Korea.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1), 75-84.

Hong, J. D., & Gang, H. G.(2016).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Startup Education in Korean University: Centering on undergraduate and graduate degree programs and non-degree programs. The Korean Society of Business Venturing Semi Annual. *Proceedings of Conference on Business Venturing, Spring 2016*, 163-165.

Hwang, G. J., & Qing, C. L.(2021). The Effect of Start-up Education and Consulting on Start-up Intentions: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Start-up Competenc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9(6), 23-28.

International Council of Management Consulting Institutes(2022). *International Council of Management Consulting Institutes.* Retrieved (2022.12.27.) from www.icmci.org.

Jeon, K. S.(2009).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of ManAgement Consulting for the Business Performance of SME and Venture Enterprise*.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Konkuk University.

Jeong, Y. S., & Cho, D. H.(2020). A Study on the Comparison of the Importance of Determinants in the Intention of Start-up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ity*, 15(4), 145-165.

Joo, Y. D.(2005). *Business Consulting Service*. Seoul: Namdoo.

Jung, H. Y., & Hong, H. J.(2021). An Analysis on Customized Education Research Trends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rough Text Mining.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33(3), 433-454.

Kang, J. S.(2008). A Case Study on Appliance of Quality Survey Methodology to the Korean Critical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43(3), 81-113.

Kim, H. Y., Lee, C. G., Seo, C. S., & Oh, I. H.(2013).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of Management Consulting process for Organization Competence and Performance of SME and Venture Enterprise. *Journal of the Korea Management Engineers Society*, 18(3), 63-81.

Kim, K. H., & Kim, Y. T.(2014). Effects of Start-up Mentoring Educational Factors on Satisfaction with Start-up Education and Start-up Inten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9(5), 33-41.

Kim, M. H., Yoon, G. S., & Park. J. W.(2020). An Exploratory Research on Learning Competency based Personalized Learning in K University. *Journal of practical engineering education*, 12(1), 49-60.

Kim, Y. C.(2012).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1: Bricoleur*. Paju: Academypress.

Kim, Y. J.(2017). A Case Study for Implementing Problem Based Learning(PBL) on Entrepreneurship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ity*, 12(3), 285-309.

Kim, Y. S., & Lee, I. H.(2022). A Effect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of University Students on Entrepreneurship Intention Mediating Effect Entrepreneurial Opportunities.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ity*, 17(2), 189-213.

Kolb, D. A., & Frohman, A. L.(1970). An Organization Development Approach to Consulting. *Sloan Management Review*, 512-565.

Koo, K. S., Lee. M. J., & Kim. Y. E.(2012). A Research on Addictive Use of Smartphone by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13(4), 501-516.

Korea Dictionary Of Occupations.(2019). *Start-up consultant.* Retrieved(2022.11.03) https://www.work.go.kr/consltJobCarpa/srch/ jobDic/jobDicIntro.do?pageType=jobDicIntro.

Kubr, M.(1997). *Management Consulting 3rd ed.* ILO.

Kubr, M.(2003). *Management Consulting: A Guide to the Profession Fourth ed*. ILO.

Kuratko, D. F.(2003). *Entrepreneurship Education: Emerging Trends and Challenges for the 21st Century. 2003 Coleman Foundation White Paper Series.* Chicago: Coleman Foundation.

Kuratko, D. F., & Hodgetts, R. M.(2007). *Entrepreneurship: Theory, process, practice 7th ed.* Mason, OH: Thomson/South Western Publishing.

Kwak, D. S., Jung, H. Y., & Kim, M. S.(2016). The Effect of University Entrepreneurial Education Service Quality on Education Satisfaction, Entrepreneurial Capabilit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4), 37-48.

Lee, D. S.(2016). The Essence and Critical Characteristics of Differentiating in Differentiated Instruction. *The Journal of Inclusive Education*, 11(2), 187-216.

Lee, H. L.(2014). Precarity and Hope in Digital Labor: In-depth Interviews on the Off-campus Internship Experiences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66(2), 211-241.

Lee, J. A., & Jung, S. G.(2020). A Study on the

Entrepreneurship Education Method to Develop Entrepreneurship Competence of Foreign Language Specialization University. *Korean Management Consulting Review*, 20(3), 113-123.

Lee, K. H.(2011). *Business Consulting.* Paju: Bobmunsa.

Lee, S. H., Kim, J. E., & Nam, J. M.(2020).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University Start-up through the Analysis of University Start-up Education and Start-up Support System: Focusing on the start-up education and start-up support system of D University.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5(4), 151-160.

Lee, S. M.(2017). Meaning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Psychological Variables in Homo Hundred Era.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32(6), 281-300.

Lee, S. Y., Lee, J. W., Lee, M. Y., & Chang, W. S.(2020).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and Improvement of University Start-up Support Policy: Focusing on the Recognition of the University Employees in charge of Start-up incubation programs.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39(3), 67-86.

Lee, W. C., & Choi, J. I.(2017). A Study on the Direction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Universities linked to Community.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2(6), 89-98.

Lee, Y. H., & Seo, Y. W.(2018). Strategies for Sustainable Business Development: Utilizing Consulting and Innovation Activities. *Sustainability*, 10(11), 4122.

Lee, Y. S.(2017). A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of University Students' Start-up Intention by Comparison between Countries.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ity*, 12(5), 303-323.

Lim, H. R., & Hong. S. P.(2020).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Entrepreneurial Performance at the University Level for Becoming Entrepreneurial Universitie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5(2), 19-32.

Liu, H. Y., & Zhang, W.(2015). Deepening University Entrepreneurship Education during Economic Transi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d Education and Management*, 67-71.

Lorino, P.(1997). *Méthodes et Pratiques de la Performance,* Paris: *Les Editions*. d'Organisation.

Marcin, P.(2017). Student Business Consulting: Learning by Doing. 1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Education. *Research and Innovation(ICERI2017)*, 1848-1852.

McLachlin, R. D.(1999). Factors for Consulting Engagement Success. *Management Decision*, 37(5), 394-404.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2022a). *Announcement of the Integrated Start-up Support Project in 2022*. Retrieved (2022.06.15.) from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126&bcIdx=1031000.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2022b). *Announcement of recruitment for start-up-oriented universities in 2022 (revised)*. Retrieved(2022.06.15.) from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310&bcIdx=1030557&parentSeq=1030557.

Nam, J. M.(2017). A Study between Online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Entrepreneurship: Based on PBL(Problem-Based Learning) and Flipped Learning.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2(2), 31-40.

Nam, J. M., Yoo, H. K., Kim, Y. H., Kang, E. J., Lee, H. S., Jang, K. H., & Kim, S. J.(2022). An analysis of IPA for the Improvement of University Start-up Support System: Focusing on the case of the D university.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7(2), 53-64.

Park, J. B., Yang, Y. S., & Kim, M. S.(2020). The Effect of Active Senior's Career Orientation and Educational Entrepreneurship Satisfaction on Entrepreneurship intention and Entrepreneurship Preparation Behavior.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5(1), 285-301.

Park, J. Y., & Yang, H. S.(2014). The Effects of Entrepreneurial Characteristic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Focusing on Entrepreneurship Education completed Prefounder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9(2), 97-107.

Park, N. E.(2022). *"I want to work and make it tomorrow". Growth of University Students' Start-up.* Maeil Business newspaper. Retrieved(2022.05.19.) from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5/444013/.

Park, N. G.(2020). The Study on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art-up Education & Support on Employment Rat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5(4), 97-108.

Prencipe, A., Davies, A., & Hobday, M.(2003). *The Business of Systems Integr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yo, W. J., & Ha, H. H.(2015). A Consulting Case Study on the small Start-up through using the Business Model Canva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5(10), 561-569.

Reich, R.(1991). *The Work of Nations: Preparing Ourselves for the 21st Century Capitalism*. London: Simon and Schuster.

Rocha, J. R. Jr., & Khan, M. R.(1984). Impact of Counseling on Small Business Performance. *American Journal of Small Business*, 9(1), 34-43.

Seo, G. W.(2021). An Alternative Interpretation and Practice of Customized Education: Graengee Education and Practice Inquiry. *The Journal of Anthropology of Education*, 24(4), 1-38.

Seol, B. M.(2012). Effect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Based on Relative Policies Link.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7(2), 9-17.

Steele, F.(1975). *Consulting for organizational change*. University of Massachusetts-Amherst.

Small Enterprise And Market Service.(2020). *Start-up manage ment consulting.* Retrieved(2022.11.04.) https://www.semas.or.kr/web/SUP01/SUP01 02/SUP010202.kmdc.

Si, J. H.(2018). The Effects of Problem-based Learning Using Argumentation Scaffolds on Critical Thinking Skills in Medical School. *Korean Journal of Thinking Development*, 14(1), 75-97.

Simon, A., & Kumar, V.(2001). Clients' Views on Strategic Capabilities which Lead to Management Consulting Success. *Management Decision,* 39(5), 362-372.

The Ministry of Education(2021). *A plan to promote future curriculum with the people(draft)* Retrieved(2022.12.19.) from https://if-blog.tistory.com/11998.

Timmons, J. A.(1994). *New Venture Creation: Entrepreneurship for the 21st Century*. Boston: Irwin/McGraw-Hill.

Tomlinson, C. A., & Allan, S. D.(2000). L*eadership for Differentiating Schools & Classrooms. Alexandria*. VA: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Tomlinson, C. A., & Mctighe, J.(2006). *Integrating Differentiated Instruction & Understanding by Design: Connecting Content and kids.* Assn for Supervision & Curriculum.

Varela, F.(1989). *Invitation aux Sciences Cognitives*. Paris: Editions du Seuil.

Walter. S. G., Parboteeah. K. P., & Walter, A.(2013). University Departments and Self-Employment Intentions of Business Students: A Cross-Level Analysi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7(2), 175-200.

Williams, A. P. O., & Woodward, S.(1994). *The Competitive Consultant: A Client-oriented Approach for Achieving Superior Performance*. The Macmillan Press Ltd.

Yoon, E. G., & Lee, Y. J.(2018). A Comparative Study on the Curriculum of General Education across 9 Universities of the World to Improve the System.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2(2), 259-286.

Yoon, Y. J., & Lee, J. W.(2022). A Study on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f University Students on Self-Leadership, Innovative Behavior and Entrepreneurship Intention: Focusing on Chinese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41(1), 23-42.

Proposals for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Universities' Start-up Support Centering on Customized Start-up Education: Focusing on In-Depth Interviews of D University Students Who Received On-Campus Business Consulting

An, Hye-Jin*
Lee, Seung-Ha**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whether learner-customized start-up education, such as business consulting, functions effectively as part of universities' start-up support and whether business consulting positively strengthened start-up capabilities compared to consulting from other institutions. Furthermore, it explored the direction of universities' start-up support development by harnessing customized education, such as business consulting.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business consulting had a positive impact. It informed the shortcomings of individual founders (teams) and identified the direction for improvement. Second, compared to consulting from other institutions, the fact that it formed a relationship between the consultant and the student beyond the business relationship and that it was conducted for free on campus have a relative advantage. Such business consulting enabled university students to see the world more maturely. Third, this study argues that customized start-up businesses can generate synergy with school curriculum and other non-curricular subjects. Based on this perception, it designed a method to build a co-curriculum education system. This study is significant because it investigated satisfaction and the possibility of a customized start-up business with business consulting as a representative case, exploring the direction of support for start-up education students want.

KeyWords: Start-up support, start-up education, business consulting, in-depth interview, customized education

* First Author, Visiting Professor, Dan-Kook University and Doctoral Student, Chung-Ang University, ahj332@naver.com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shpoem@naver.com